

E.C 統合은 美國 고무産業에 好材인가, 惡材인가

金 民*

「이 原稿는 美國의 Rapra Technology's Business Development Consultancy社 매니저인 G. Christopher Karas氏가 ACS Rubber Division 136次 會議에서 행한 演說文을 발췌한 것이다. E.C 統合이 美國의 고무産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專門家의 見解를 들어본다.……………〈譯者註〉」

1. 序 論

1993年 1月 1日부터 E.C는 거대한 單一市場으로 統合된다. 1958년부터 長期間에 걸쳐 論議되어왔던 이 問題는 1987年 1月 1日에서야 結論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誕生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 統合은 유럽의 經濟問題解決의 萬病通治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반면에 12個 國家의 異質의인 文化와 歷史가 유로製品, 유로머니, 유로制度란 거대한 하나의 山脈으로 뭉쳐지는 데 대한 불안감과, 國家마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憂慮感을 낳고 있다.

그러나 世界의 企業家들이 共通的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이 統合이 自己事業에 威脅이 되는가 아니면 有利한 것인가 하는 疑問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本人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上記의 疑問에 대한 解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本人은 E.C에 관한 몇 가지 資料를 提示하고 單一유럽法(Single European Act)의 背景과 目的을 설명하고 이것이 유럽의 고무産業에 미칠 영향과 美國의 고무産業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資料는 Rapra Technology Ltd.에서 제공한 것이다.

E.C 12個 會員國의 전체 인구는 3억 2,000만명이다. 國內總生産(GDP)은 1인당 7,800달러로서 美國의 16,000달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人口의 75%가 4個國, 즉 西獨, 이탈리아, 英國, 프랑스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4個國 가운데서도 西獨과 이탈리아의 GDP는 40%의 차이가 있다. 더구나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격차는 더욱 크다(表 1 참조).

E.C의 會員國들을 단지 巨視的인 經濟統計數値로만 區別해서 볼 것은 아니다. 어떤 나라는 2,700年前의 古代 그리스 都市國家로

* 大韓타이어工業協會 業務部長

〈表 1〉 유럽의 人口 및 國內總生産

國 家	人口(100萬名)	GDP(US\$ 1,000)
西 獨	61.2	20.6
이 탈 리 아	57.3	14.9
英 國	56.9	12.9
프 랑 스	55.6	17.6
스 페 인	39.0	9.3
네 덜 란 드	14.7	16.2
포 르 투 갈	10.2	4.0
벨 기 에	9.9	15.7
그 리 스	10.0	2.9
덴 마 크	5.1	21.8
아 일 랜 드	3.5	3.8
룩셈부르크	0.4	10.2
總 計	323.8	149.9

거슬러 올라가는 긴 歷史를 갖고 있다. 또 어떤 나라들은 불과 數百年前에 생긴 것도 있다. 그들은 民族的으로도 地域的으로도 다르다. 그러므로 유럽의 歷史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가에 대해서 놀랄 이유는 없다.

2次大戰은 ‘유럽 國民들을 보다 結束시킬 수 있는 機構의 必要性’을 갖게 하였으며, 그 方法의 一環으로서 ‘유럽 各國家間的 울타리를 제거하여 經濟的·社會的 繁榮을 追求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957년의 로마協定이 바로 그것인데, 그 協定의 主要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共同市場의 設立
- 會員國間 經濟政策의 共同步調
- 經濟開發의 調和
- 持續的·均衡的인 經濟擴大
- 安定的 成長
- 生活水準의 向上
- 會員國間的 紐帶強化

최초의 E.C 會員國은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西獨이었으나, 1972년에 英國, 아일랜드, 덴마크가 加入했고, 1981년에는 그리스, 1986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加入하였다. 그러나, 1980年代 中盤의 E.C는 30年前 出發時의 理想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일부 貿易障壁은 아직도 남아 있고 그것은 일부 없었다가 다시 생긴 것도 있다. 특히, 技術的이고 行政的인 規制가 많았다. 극단적인 경우 어떤 會員國의 製品이 자기 나라의 標準(National Standard)에 맞지 않는다 하여 輸入을 완전히 봉쇄한 적도 있고, 따라서 業體들은 같은 商品을 여러가지 標準에 맞추어야 했다.

會員國間에도 入國을 포함한 領事業務와 稅關統制가 있다. 따라서 商品이 各國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書類가 必要하며, 현재 유럽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樣式物은 70가지가 된다.

運賃計算方式에도 차이가 있고 衛生, 安全, 環境, 品質管理 關聯法規도 다르다. 그러므로 企業의 他國家內 活動과 他國企業間的 協調는 制約을 받는다.

그밖에도 政府物資 調達參與에 대한 차별, 就業資格不認定, 差等稅金 등등 ‘非共同市場’이다.

이를 빗대어 「European Civil Service紙」는 ‘Non-Europe’이라 표현하였다. 同紙는 이와 같은 制限 때문에 消費者와 企業體가 입는 損失을 다음과 같이 推定하였다.

- 稅關節次 때문에 120억달러
- 共同契約制限 때문에 300억달러
- 技術情報開發이 안됨에 따라 400만달러
- 商品標準이 다름에 따라 原價의 20~30% 引上要因發生

이와 같은 實情으로서는 世界規模의 產業으로 쉽게 繁榮하기는 어렵다. E.C의 競爭者라 할 수 있는 美國 및 日本과는 달리 E.C 會員國들은 自國內 市場規模가 작기 때문에 技術革新이나 商品開發을 과감하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E.C 전체의 研究開發費規模는 日本의 그것과 비슷한 정도이다. 또한 E.C 各國은 規模의 經濟化를 促進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홍콩, 싱가포르, 韓國, 臺灣이 새로운 經濟的 威脅國家로 등장하였고 아세안 國家들도 이에 加勢하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E.C는 内部市場을 다져야 할 필요를 느낀 나머지 1987년에 E.C會員國들은 單一유럽法을 채택하고 1992년까지 유럽 單一市場을 구축하기로 최종 合意하였다.

2. 유럽 單一市場

1992年末까지 物質的·技術的·財政的인 3가지 類型의 貿易障壁을 除去하는 것을 포함하여 280가지 이상의 措置가 단행될 것이다.

物質的 貿易障壁의 除去란 前述한 域內國家의 國境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書類를 없애는 것이다. 이들 書類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國境없는 하나의 유럽國家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技術障壁의 除去란 自國內 産業保護를 위하여 취했던 技術的인 障壁이 철폐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30年동안 各國은 서로 다른 標準, 規格, 商品型을 調和시키려고 애써왔다.

어떤 경우에는 協商이 길어짐에 따라 法院(European Court of Justice)까지 가서 問題를 풀려고 하기도 한다. E.C 統合은 이런 問題를 해결하는 데 매우 合理的인 方法이다.

유럽 單一市場內에서 技術障壁을 없애는 두 가지 확실한 방법은 相對會員國의 標準이나 規定을 容認하거나 그와 같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衛生과 安全問題에

관한 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서로가 相對國의 規定을 容認한다는 것은 곧 다른 會員國의 商品이 自國으로 輸入되는 것이 許容됨을 의미한다. 各會員國들의 生産業者들은 제한을 받지 않는 데 비하여 非會員國들의 域內輸入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財政的 障壁의 除去는 3가지 障壁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분야이다. 그것은 政府의 輸入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稅金이 서로 다르면 결국 商品의 價格도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위의 3가지 障壁 이외에도 해소해야 할 障壁은 政府購買인데(유럽내에서 商去來의 10%가 政府調達에 의한 것임) 理論的으로는 다른 會員國의 商品供給者를 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軍事物資 기타 특수부문에서는 제약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유럽이 商品要塞化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域外商品의 輸入과 投資를 막는다는 것도 아니다.

3. 유럽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1992년까지 E.C域內의 모든 貿易障壁이 없어지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과거 7년간 域內 貿易障壁의 해소를 위하여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域內國家間에는 經濟的인 利害關係의 對立이 있어왔다.

상황변화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統合의 影響에 대한 보고서는 없는 가운데 Paulo Ceccini 박사가 分析한 것이 하나 있다. 그는 GDP 增加率을 6.4%로 보았는데 그 내용은

物質的인 貿易障壁의 解消로 0.3%, 技術的인 障壁의 解消로 2.4%, 規模의 經濟化로 2.1%, 기타 효과로 1.6%이다.

또한 200萬名의 일자리가 생기고 消費者物價는 5% 내린다. 이 展望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이익의 50%가 規模擴大, 效率性, 産業構造改善에서 생긴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장미빛 전망’에 대하여 全的으로 同意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同展望이 모든 産業에 똑같이 適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表 2>에서 보듯이 各會員國家의 商品價格이 서로 차이가 큰 商品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알 수가 있다.

<表 2> 유럽 各國의 商品價格 比較指數

國 家	獨逸製乘用車	醫藥品	家庭用器具
벨 기 에	100	100	100
프 랑 스	115	78	130
西 獨	127	174	117
이 탈 리 아	129	80	110
네 델 란 드	n/a	164	105
英 國	142	114	93

위 表에 나타난 가격차이 가운데 어떤 것은 消費者의 選好度에 의하여 생긴 것도 있다. 이와 같은 가격차이는 90年代 全般을 통하여 상당히 長期間 存在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바로 유럽市場의 多樣性 때문이다.

消費者들의 商品選擇範圍는 넓어지게 되고 購買力도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消費者들은 어째서 자기네 製品을 貯혀두고 다른 유럽國家들로부터 輸入되는 商品을 계속 購買하고 있는 것인가? 어째서 그들은 값싼 日本製 自動車 대신 유럽産을 購買하고 있는 것인가?

1992年 이후라도 消費者들의 購買形態가

갑자기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産業構造改編이란 단순히 많은 物量을 싼값으로 만들어서 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産業構造改編의 進行이나 當爲性을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規模의 經濟化가 실제로 필요한 産業(예컨대 原料供給과 같은)이나 需要에 맞추어 生産을 柔軟하게 調節할 수 있는 産業으로 構造改編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유럽統合市場이 가져다 줄 발전가능성을 否定的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統合이 유럽 産業界에 미칠 利益은 막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 利益이란 것은 生産規模의 擴大에서 얻는 것보다는 多樣化에서 얻는 것이 더욱 큰 것이다. 또한 製品生産뿐만 아니라 유럽 業體들의 技術開發에 의한 競爭力強化가 더 큰 利益을 가져다 줄 것이다.

4. 技術革新

이 技術開發이야말로 유럽産業의 競爭者들을 물리칠 수 있는 原動力이 될 것이다. 統合의 決定은 곧 技術開發을 통하여 産業의 競爭力을 擴大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統合法 130F條에는 ‘統合의 目的은 유럽企業의 科學·技術을 強化하여 國際市場에서 競爭力을 보다 促進하는 데 있다.’고 하였으며, 130I條는 E.C는 이와 같은 目的을 遂行하기 위하여 多國家的인 措置計劃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同計劃은 科學·技術에 첫번째로 優先順位를 두어야 하며, 이 計劃을 遂行하는 데 필요한 資金計劃을 세워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88年 E.C 執行委員會가 쓴 비용은 16억달러에 달한다. 이 額數는 E.C豫算의 약 3%가 된다. 1987년부터 1991年

까지 總所要資金은 71억달러이며, 1992년부터는 매년 22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방대한 投資는 E.C의 各企業들이 投資하는 R & D의 절반 정도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1991年末까지 統合法은 140억달러의 R & D 投資를 유도하는 셈이다.

1987~1991年の 事業內容은 <表 3>에 나타난 바와 같은데, 이 表를 보면 産業現代

<表 3> E.C의 主要 R&D 投資計劃(1987~1991)
(單位: ECU 100萬)

野	金額
製品의 壽命延長	375
大規模市場에 관한 情報獲得 및 交換分野	2,275
産業施設의 現代化	845
生物學資源의 開發 및 適正活用	280
에너지	1,173
其他	468

* 1 ECU=1.1 US\$

化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이 부문에 약 9억 3,000만달러가 投入될 예정인데, 民間企業의 直接投資까지 포함하면 약 19억달러가 예상된다.

<表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産業現代化 支援金額 가운데 60%(7억달러)가 製造 및 基礎原料의 科學·技術에 投入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유럽의 産業構造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12個 會員國의 經濟力의

<表 4> 産業現代化를 위한 投資目標
(單位: ECU 100萬)

分 野	金額
製造分野의 科學·技術	400
新素材分野의 科學·技術	220
技術標準, 測定方法, 關聯材料部門	180
天然材料 및 再生材料	45
總 計	845

結集에 따라 技術向上도 比例할 것이다.

또 한가지 看過해서는 안될 점은 西유럽 地域에서 일어나고 있는 世界化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産業全般에 걸쳐서뿐만 아니라 고무産業分野에도 그러한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産業의 國際化를 主導하고 있는 企業들은 日本이나 美國業體들이고 유럽의 會社들은 이 부문에서의 活動이 미약하다.

그러나, 또다른 局面도 있다. 그것은 世界經濟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東歐圈의 出現이다. 이미 헝가리가 E.C加入을 논의하고 있고, 코메콘(COMECON)國家들도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몇 가지 考慮事項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獨逸統一의 經濟的 影響은 무엇일까?
-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國家들에 대한 西유럽의 支援이 그들의 經濟力에 미칠 影響은 무엇일까?

5. 유럽의 고무産業

이에 대응하는 유럽의 고무産業은 어떠한가? 그에 답하기에 앞서 유럽 고무産業의 屬性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世界 고무製品生産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이다. 美國은 19%, 日本은 11%, 其他國家는 53%의 生産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表 5>에 의하면 유럽내에서의 고무需要 構造는 西獨이 전체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약 19%로 되어 있다. 더 細分된 내용은 <表 6>에 나타나 있는데, <表 6>에 의하면 타이어는 프랑스가 앞서는 반면에 이탈리아는 그와는 반대로 뒤쳐져 있다.

유럽市場이 統合되면 이와 같은 異質的인

〈表 5〉天然고무 消費量(1988)
(單位: 1,000톤)

國 家	消 費 量
프 랑 스	496
이 탈 리 아	452
西 獨 逸	670
英 國	367
其 他	505
西 유 럽 計	2,567
美 國	2,843
日 本	1,665
其 他	7,870
世 界 總 計	14,945

〈表 6〉E.C의 고무消費量(1988)
(單位: 1,000톤)

國 家	타이어	非타이어	計
프 랑 스	327	169	496
이 탈 리 아	178	275	452
英 國	179	188	367
西 獨 逸	291	322	670
其 他	n/a	n/a	583
總 計			2,567

資料: IRSG.

고무産業構造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규모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나, 부분적으로 볼 때 通關節次의 생략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地域間의 運送時間이 단축됨으로써 just-in-time體制를 促進시킬 것이다. 한마디로 商品의 移動이 빨라질 것이다.

1988년에 E.C 執行委員會는 技術的인 貿易障壁이 고무産業에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다. 이때 고무業界로부터의 答辯은 中 정도라 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향은 最終消費市場에서 일어나는 變化로부터 올 것이라고 하였다.

同調査報告書에 의하면 最終消費市場部門

을 가장 큰 貿易障壁로 보는 産業은 고무, 電氣, 機械, 化學, 飲食, 담배, 醫療機器産業이었다.

技術的인 障壁의 除去가 販賣戰略에 重要한 要素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고무製品製造業者들은 그들 市場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市場은 보다 빨리 성장할 것이고 보다 革新될 것이다. 消費者에 맞추어 工場은 再配置될 것이고 just-in-time 供給方式이 通用될 것이다.

1,500餘 유럽 고무製品製造業者들은 이와 같은 趨勢에 대응하고 있다. 타이어部門에서는 이미 世界的인 企業이 있으며, 世界타이어生産量의 3/4 이상이 7대 메이저 그룹의 손아귀 안에 놓여 있다. 또한 케이블産業도 中대한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一般고무製品分野에서 일어나고 있는 變化도 E.C域内の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生産施設이 擴大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非E.C國家들도 이를 注視하고 E.C内の 고무産業에 대하여 調査를 하고 있다. 그밖의 다른 나라 企業들도 工場을 세우거나 유럽業體들과 合作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유럽에 대한 日本의 持續的인 投資도 看過해서도 안될 것이다. 예컨대, 닛산과 도요다가 英國에서 自動車를 製作하기로 결정한 것을 熟考할 필요가 있다. 統合法에 의하면 모든 部品은 유럽에서 供給되어야 하며, 이것은 日本의 品質基準에 맞게 되어 있는 유럽에서 또다른 고무製品의 需要를 增大시킬 것이다.

前述한 바와는 달리 그 効果가 서서히 나타나는 부문도 있다. 現在 原資材價格은 E.C域内라 하더라도 차이가 크다. 이것은 換率의 차이, 金利, 代金支拂期間이 國家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비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1993年 1月까지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6. 美國의 고무産業

E.C 統合이 美國의 고무産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本人은 統合市場이 견고한 輸入障壁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 GATT의 基調가 완전히 排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企業의 對유럽 輸出이 더 어려워질지, 아니면 더 쉬워질지에 대한 論難의 餘地는 있다. 障壁이 낮아지는 大內域內的 企業들은 강해질 것이다.

統合市場의 變化로 인하여 生産性的의 向上, 人力需給의 良好, 品質要求水準이 높아지고 just-in-time 體制에 의한 生産方式이 促進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美國의 고무製品産業에 직접적으로 長期間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많은 製品이 輸出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世界到處로 輸出하고 있는 美國內 輸出業者들이 고려해야 할 문제의 한가지는 競争力이 强해진 유럽業者들에 對하여 그들의 市場占有率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또한 유럽業者들의 美國內 市場擴大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技術力이 充分한가 하는 점이다.

7. 結 論

E.C가 행하고 있는 각종 措置가 고무産業에 하나의 큰 충격을 주는 반면에 그 効果는 유럽의 消費者들에게 하나하나 나타날 것이다.

統合 E.C가 美國의 고무製品消費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곧 美國의 고무産業界에 충격이 될 것이다. 統合 E.C가 새삼스럽게 輸入障壁을 쌓으려 하지는 않으나 域內的 産業이 強化됨으로써 결국 輸入抑制의 效果가 나타날 것이다.

革新을 위해서는 浮揚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美國의 고무業界는 이 技術的인 挑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苦心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企業의 世界化, 東歐의 自由化가 유럽市場의 장래에 重大한 變數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그 威脅을 우리가 명백히 이해한다면 유럽市場의 統合이 우리에게 하나의 轉機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本人은 생각한다.

(Elastomerics, April 1990)

각종 박람회 개최안내

- 라고스 국제박람회
 1. 기 간 : 1991(매년개최)
 2. 장 소 : 나이지리아, 라고스
 3. 규 모 : 65,000 S/M
 4. 참가국(상사) : 350개사
 5. 주요전시품목 : 식품가공플랜트, 자동차 및 부품, 농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타이어, 의료기기 등
 6. 신청마감일 : 1991. 9. 30